

22강

20세기(II) 카뮈와 사르트르

1. 실존주의

① ‘신’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현대 이전의 사상가들은 ‘확실한’ 근거를 찾고자 노력해왔다.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오류를 범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존재를 ‘절대자’ 혹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존재의 특성은 ‘본질’에 있고, 인간은 그와 다른 존재이므로 영원히 그 ‘본질’을 이해하고, 체화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절대자로서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한자로서의 나는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며, 무엇에 기대어 살아갈 것인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존재를 회의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세계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합리적이고 끊임없이 진보를 이루어가는 도정에 있는가? 그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의지적’ 행동은 무엇을 통해 그 유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전후의 사상가 및 작가들은 서구의 근대를 형성했던 합리성과 보편성, 그리고 이성의 진보라는 믿음을 회의했으며, 때로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②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이때 ‘실존(l'existence)’이라는 말은 ‘본질(l'essence)’와 대립한다. 이 말은 원래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독일어 Dasein이라는 말의 번역어이다(da : là, sein : être). ‘그곳에 있는 존재’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그곳에 ‘우연히’ 있는 것뿐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그것이 인간에게 소용되는 ‘목적’이 있고, 그것이 어떤 곳에 놓여 있다면 그것의 쓰임에 적합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을 위해(목적)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어떤 곳에 서 있다면 그것은 미리 정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은 모든 개인은 정해진 목적도, 미리 갖고 태어난 가치도 없이 세상에 우연히 솟아난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의 가치는 오직 개인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갖게 되며, 이런 점에서 모든 종류의 결정주의와 맞선다.

ex) 1) ‘삼각형이란 3개의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도형이다.’

2) ‘여기에 연필로 그려진 삼각형이 있다.’

1)에서 ‘이다’는 삼각형의 본질존재(essentia)를 가리키지만 2)에서 ‘이 있다’는 그 현실존재(existentia)를 의미한다. 본질은 초시간적인 존재인데 반해, 현실존재는 시간적 존재이다.

2.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

① 생애

파리 출생. 1924년 고등사범학교 입학. 28년에 철학교수 자격시험에 합격. 병역을 마치고 31년 르 아브르에서 고등학교 철학 교사로 근무한 뒤 33년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나 현상학에 심취. 서른 세 살에 『구토』(1938)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에 독일 철학자 후설과 하이데거를 알리는데 기여했다. 초기에는 『상상력』(1936), 『상상적인 것』(1940), 『정서론 소고』(1939) 등의 철학 저작에서 독일철학의 영향을 드러냈으며, 결국 그의

철학 사상은 1943년 『존재와 무』에 집약되고 있다.

단편집 『벽』(1939)로 문학적 성공을 거두고 이어 4부작으로 예정되었던 장편소설 『자유의 길』(1945-1949 세 권만 발표)을 출간한다. 희곡 『파리떼』(1943), 『달힌 방』(1944), 『더러운 손』(1948) 등을 발표하여 극작가로도 큰 성공을 거둔다.

② 『구토』, 형이상학적 일기

“『구토』는 엄밀하게 말해서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 관심들이 가득 차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에세이’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험도 없고 사건도 없다. 우리가 그 ‘일기’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바의, 로캥탱이 취하는 단 한 가지 결단은 그가 드 롤르 봉 씨에 대하여 쓰려고 준비해왔던 책의 집필을 포기하고서 그가 머물고 있던 도시를 떠나기로 한 것 뿐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주인공은 극도로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하겠다. 즉 그는 ‘실존’을 의식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실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바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단번에 위협적이 될 수도 있는 기묘한 것이다.”(미셸 레몽, 프랑스 현대소설사, 김화영 역, 현대문학, 434쪽)

③ 전차의 의자에 대한 사유

사르트르에게 ‘구토’(의 경험)는 존재와 실존의 불일치에 대한 (개인적, 혹은 주관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전차에 올라 의자에 앉아 생각을 하는 주인공은 그 의자가 물론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사물’을 오로지 그의 주관성에 비추어 지각하게 된다. 이것은 의자‘이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물은 그저 ‘있기’만 하는 것, 사물의 목적과 쓰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내 ‘의식’에서 전차의 ‘배(腹)’이고, ‘죽은) 나귀’이기도 하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명명된) 사물로부터, 그 사물의 ‘이름’으로부터 해방된다.” 나는 그 사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은 그저 ‘아무 이유(목적) 없이’ 그곳에 있을 뿐이다.

3. 카뮈(Albert Camus 1913-1960)

① 생애

알제리에서 태어나 빈곤과 지병을 극복하면서 철학을 전공한 뒤,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문학수업을 하던 중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콩바』지의 주필로 항독운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195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뒤 1960년에 자동차사고로 요절한다.

산문집 『결혼』(1939), 『시지프 신화』(1942), 『반항인』(1952) 등과 희곡 『오해』, 『칼리굴라』(1944), 『정의의 사람들』(1949), 소설로 『이방인』(1942), 『페스트』(1947) 등의 저작이 있다.

② 『이방인』(1942)

카뮈는 1940년에 “모든 것이 내게는 낯설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몸짓들은, 이 미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쓴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처한 ‘이방인’으로서의 ‘낯설음’이라는 주제”를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다. “동시에 그가 ‘낯설음’을 ‘침묵’ 및 ‘창조’와 관련시켰다는 사실은 ‘이방인’의 부조리한 존재 방식을 표현, 창조하는 데 있어 ‘침묵’에 가까운 언어, 즉 ‘적게 말하는’ 표현 방식에 의존하겠다는 의도”이다.(김화영, 프랑스 현대소설의 탄생, 돌베게, 347쪽)

작품은 거의 분량이 동일한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주인공 뫼르소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양로원으로 출발하여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여자 친구인 마리를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우연히 바닷가에서 아랍인을 만나 이유 없이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 2부는 주인공이 투옥되어 심문을 받고,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재판이 시작되지만 뫼르소는 피고석에서 자기의 (살인)행위에 대한 검사, 변호사, 증인, 신문기자 등의 말들을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라도 하듯 듣는다. 결국 사형선고를 받은 뫼르소는 부속 사제의 면회도 거절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③ 일요일 오후의 담담한 묘사

인용문에서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뫼르소가 일요일 오후에서 저녁 시간을 멍하니 밖을 내다보면서 보내는 장면이다. 어둠이 조금씩 내리면서 즐겁게 일요일을 보내던 행인들도 점차 뜸해지기 시작한다. 마침내 어둠이 찾아오고, 가로등이 켜진다. 전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동네에는 마침내 아무도 없게 되고 고양이가 나타난다. 아래에 내려가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와서 아무렇게나 먹은 뒤, 뫼르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래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그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곤궁과 피로, 그리고 권태의 일상을 무기력하게 맞는다.